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三 鎮

# 1980년대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 사회요소와 헤어스타일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air style in the 1980's

2004年 8月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申 貞 美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三 鎮

# 1980년대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 사회요소와 헤어스타일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air style in the 1980's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8月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申      貞      美

申貞美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8月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적·시대적·사회요소와 Hair Style의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시대적·사회적 요소와의 연관성 알아보고, 유행 Hair Style의 미치는 영향과 배경을 알아보는 논문이다.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 한다. 그 중 1차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신체를 장식하는 것이다. 패션이나 화장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또는 개성 있게 자신을 표현하였고 이런 표현을 우리는 미용이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미용은 계속 변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변화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미용 분야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미적·문화적인 형태로 상호 연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 Hair Style 변화는 미적·사회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패션·예술 등 많은 영향을 받아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왔고, 다양한 유행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다. 실제로 TRENDS 속에는 과거에 유행했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이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유행이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옛 스타일을 시대감각에 맞게 수정, 보완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창조 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주체성과 개성 결합시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창조하였고, 사회의 다양욕구와 심리가 유행에 동조하면서 새로운 Hair Style이 유행되었다.

20세기는 인류의 기원부터 지금까지 볼 때 지난 100년간 미적·사회적·과학적·경제적·문화적으로 가장 변형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양상하게 되었다.

그중에 영향을 받은 미적 요소는 Feminism, Young Adult, Dismantlement,

Naturalism, Art Deco, Minimalism, Post Modernism, Dandy, Pleasure 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스타일을 표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스타일을 배경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이 만들어 졌고 표현 되어졌다. 이러한 미적요소는 1980년대에 와서 헤어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시대적 요소로는 1960년대 서양에서 유행한 비달사순(Vidal Sassoon)의 기하학적 커트와 크라운 Backcomb, Gradation, Bob 스타일과 Isadora Duncan에 의해 빛을 보게 된 Isadora 스타일은 1980년대 우리나라에 유행하였다, 또한 1970년대 유니섹스모드의 대중화와 과격한 펑크족의 헤어스타일, 언밸런스 스타일등은 정형화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표현한 스타일과 점과 각도와 기하학적 커트의 모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린 새로운 경지의 커트가 1980년대 우리나라의 유행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리고 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드라이 기법은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Brooke Shields 스타일로 큰 유행을 선도하였다, 1980년대에는 기술의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웨이브 기구가 나타나서 Perm에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시사회적 요소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교복 자율화로 헤어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두발의 길이에 따른 짧은 상고 형이 젊은이들 사이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영향을 받은 머리스타일로는 인공적인 스타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트레이트가 8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다. 1980년대의 Hair Style은 사회적 요소뿐 아니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80년대 이전 국제적으로 유행한 Hair Style이 급속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미디어로 유입된 헤어스타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헤어스타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 목 차

|                                                 |           |
|-------------------------------------------------|-----------|
| <b>I. 연구의 필요성</b>                               | <b>1</b>  |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                                 | 3         |
| 제3절 연구의 방법                                      | 4         |
| <b>II. 이론적 배경</b>                               | <b>5</b>  |
| 제1절 20C 서양의 유행 Hair Style                       | 7         |
| 제2절 20C 우리나라의 유행 Hair Style                     | 10        |
| <b>III. 미적, 사회적 시대 요소와 80년대 Hair Style의 연관성</b> | <b>12</b> |
| 제1절 미의식과 80년대 Hair Style과의 연관성                  | 12        |
| 1. Feminism과 80년대 Hair Style                    | 13        |
| 2. Young Adult와 80년대 Hair Style                 | 15        |
| 3. Dismantlement와 80년대 Hair Style               | 16        |
| 4. Naturalism과 80년대 Hair Style                  | 17        |
| 5. Art Deco와 80년대 Hair Style                    | 19        |
| 6. Minimalism과 80년대 Hair Style                  | 20        |
| 7. Post Modernism과 80년대 Hair Style              | 21        |
| 8. Dandyism과 80년대 Hair Style                    | 23        |
| 9. Pleasure와 80년대 Hair Style                    | 24        |
| 제2절 미의식과 1980년대 나타난 Hair Style과의 관계             | 26        |
| 제3절 시대적 헤어스타일과의 80년대 Hair Style 연관성             | 27        |

|                                             |           |
|---------------------------------------------|-----------|
| 1. 1960년대 유행 Hair Style .....               | 27        |
| 2. 1970년대 유행 Hair Style .....               | 32        |
| 3. 80년대 유행한 Hair Style의 기법 .....            | 37        |
| 제4절 80년대 사회적 요소와의 Hair Styl의 국내외적 연관성 ..... | 42        |
| <br><b>IV. 결 론</b> .....                    | <b>51</b> |
| <br>* 참고문헌 .....                            | 53        |
| <br>* ABSTRACT .....                        | 5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남성의 퍼머넌트 .....                 | 14 |
| <그림 2> 보브 단발 스타일 .....                | 14 |
| <그림 3> 보브 단발 스타일 .....                | 14 |
| <그림 4> 볼륨 스타일 .....                   | 15 |
| <그림 5> 볼륨 스타일 .....                   | 15 |
| <그림 6> 레게머리 .....                     | 17 |
| <그림 7> 롤스트레이트 .....                   | 18 |
| <그림 8> 남성의 짧은 상고머리 .....              | 19 |
| <그림 9> 짧은 단발머리 .....                  | 21 |
| <그림 10> 포니테일 .....                    | 21 |
| <그림 11> 핑키 스타일 .....                  | 23 |
| <그림 12> 짧은 단발 스타일 .....               | 24 |
| <그림 13> 롤스트레이트 .....                  | 24 |
| <그림 14> 가발을 사용한 업스타일 .....            | 25 |
| <그림 15> 헤어스타일제 사용한 개성연출 .....         | 25 |
| <그림 16> 제클린 케네디 .....                 | 28 |
| <그림 17> 1960년대 올림머리 스타일 .....         | 29 |
| <그림 18> 앞머리 바가지 타일 .....              | 30 |
| <그림 19> 걸마름 스타일 .....                 | 31 |
| <그림 20> 비틀즈 .....                     | 31 |
| <그림 21> 헵번스타일 -앞머리스타일의 대명사 .....      | 32 |
| <그림 22> 바람머리 스타일 .....                | 35 |
| <그림 23> 다이애나 비 .....                  | 36 |
| <그림 24> 낸시 쿼 (Nancy Quant) 스타일 .....  | 39 |
| <그림 25> 파이프 포인트(Five Point) .....     | 40 |
| <그림 26> 파이프 포인트(Five Point) .....     | 40 |
| <그림 27> 비대칭커트 .....                   | 40 |
| <그림 28> 충진 기하학적 커트(Acute Angle) ..... | 41 |
| <그림 29> 충진 기하학적 커트(Acute Angle) ..... | 41 |

|                                  |    |
|----------------------------------|----|
| <그림 30> (A-Line Bob)스타일 .....    | 41 |
| <그림 31> (A-Line Bob)스타일 .....    | 41 |
| <그림 32> 2단 보브스타일 .....           | 42 |
| <그림 33> 앞머리의 시저를 사용한 테크닉 .....   | 43 |
| <그림 34> 앞머리의 시저를 사용한 테크닉 .....   | 43 |
| <그림 35> Brooke Shields 스타일 ..... | 44 |
| <그림 36> 세팅 웨이브 .....             | 44 |
| <그림 37> 세팅 웨이브 .....             | 44 |
| <그림 38> 올림머리 스타일 .....           | 45 |
| <그림 39> 내추럴 perm와 핑키 스타일 .....   | 47 |
| <그림 40> 내추럴 perm와 핑키 스타일 .....   | 47 |
| <그림 41> 젤과 무스를 이용한 헤어스타일 .....   | 47 |
| <그림 42> 보브 웨이브머리 .....           | 48 |

# I. 연구의 필요성

## 제1절 연구 목적

Hair Style은 항상 변화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독특하고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하면서 그 속에서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표출하여 만족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스타일하면 동질감으로 좋아하고 같은 것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소속감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배경으로는 사회 변화, 확대, 활발한 교류와 헤어스타일과의 연관성과 여기에 창조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관조적 측면과 개인적 자아실현 등 많은 부분을 포함되면서 서로 상호 연관성 띄고 있음을 유행 통해 헤어스타일 변화를 알 수가 있다

과거에는 Hair Style이라는 것은 패션의 부분에 국한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더욱더 확대 되어 이제는 패션의 부속품이 아니라 오히려 Hair Style이 또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 사회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유행 헤어스타일로 알 수 있지만, Hair Style은 패션이라는 부분에서 그 패션을 주도하는 큰 요소자리를 잡고 있고, 상호 불가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유기적인 시각적·조형적 법칙 관계도 가지고 있음을 헤어 트렌드를 통해 알 수 있다.<sup>1)</sup>

20세기는 다양한 사회적인 발전과 문화적, 예술적인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전의 100년간의 단위의 시간들과 비교 해 볼 때 어느 때 보다도 더 활발한 국제적 교류가 일어났고, 큰 세계적인 전쟁·기술적·산업적·사회적 혁명이 나타났으며, 여성의 해방과 다양 사회 진출은 Hair Style 다양성이 나오게 된 계기를 형성하였다. 사회는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였다.

---

1) 임석중, 패션 트렌드와 헤어스타일 변화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또한 약간의 형태를 달리하여 반복되는 TRENDS를 형성하게 되었다.<sup>2)</sup> Hair Style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야로써 많은 변화와 흐름을 가져 왔으며, 반복되는 TRENDS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반복되면서 발전되는 재창조적 헤어스타일을 나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20세기를 정리해 보면 100년의 시대에 놀랍도록 발전하였다. 1900년에서 1960년 이전까지는 일제 식민지와 주변국가와의 전쟁 또한 1950년대의 6.25 전쟁 등 반세기에는 혼란의 연속이었지만 1960년 이후 경제 개발과 함께 미디어의 발전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1960년 동란 후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국내의 유행 Hair Style과 국제적 유행 Hair Style 교류를 통한 다양한 Style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외국 영화 배우들의 모습에서 모방하였고, 신문과 잡지에 소개 되는 많은 정보로 인해 획일적으로 유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Cut 기술의 다양화로 머리 모양의 변화가 많았으며, 업스타일과 Bob스타일(단발머리)이 유행하였다. 1965년경부터 가발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1967년에는 동양인의 큰 얼굴과 편편한 두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형미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헤어 Cutting 스타일이 유행 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체로 퍼머넌트와 커트기법을 병용한 Hair Style이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에는 Clipper의 도입과 Cut의 재교육, 염색의 다양한 Coloring 도입, 다양한 Permanent 기법이 개발되어 곱은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퍼머넌트가 유행되었다.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타일링 제품 다양한 모발 제품도 개발되어 가정에서도 모발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Hair Style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을 알아보기 위해 社會, 文化, 經濟, 藝術 분야 등 영향을 받은 연관성과 영향을 끼친 부분 등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호

---

2) 이성옥 외 4명, 이미지 메이킹, 수문사, p.42.

작용으로 다양한 Hair Style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20세기 전반의 스타일을 정리하면서 각종미용 미의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으로 사회적인 요소와 헤어스타일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시대별로 나누어 비교하여 이 198년 Hair Style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

연구의 범위는 1980년대 시대적 사회적 요소와의 연관성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 Hair Style 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데 중심을 둔다. 이러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20C의 유행한 Hair Style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시기에 유행한 미적요소를 알아보고 그 미의식와의 1980년대 Hair Style과의 연관성을 대입해 본다. 주로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Cut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또 1980년대의 스타일을 알기위해 우리나라의 이전시대에 유행한 스타일과의 연관성과 서양의 Hair Style과의 연관성을 1960년대 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러한 이유는 1960년대 비달사순(vidal Sassoon)의 Cut 선의 정리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Hair의 기본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고, 이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다양한 Hair Style 나왔고 이 기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Cut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요소로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의 컬러 시대와 86아시아 게임, 88올림픽으로 인하여 국제 교류가 활발하여 이제는 국제적 유행 Hair Style의 도입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는 社會, 經濟, 文化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주의 양상도 띄게 되어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되었다. 사회

요소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Hair Style을 1980년대 유행한 스타일로 연구한다. 단 스타일제와 두피제는 배제하여 연구한다.

### 제3절 연구 방법

각종 서적 연구, 논문, 및 도록 등 인쇄물 등의 연구를 통하여 Hair Style 성을 알아보고 Hair Style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다. 또한 20세기 유행의 반복 Hair Style을 알아보면서 정리를 해본다. 우리나라 헤어스타일을 알아보고 또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政治, 經濟, 文化가 Hair Style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시대별 작품을 분석하고 Decade별 Hair Cut을 중심으로 선정해 정리하여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 20세기 시대별 유행 스타일

현대 사회생활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미용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더욱이 미를 추구하는 여성에 있어서는 미용은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 이기 때문이다.<sup>3)</sup>

다변화하는 20세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 및 개인의 개성 표현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다양한 미적 가치의 확대와 다원화가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지위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려던 가부장적인 사회적 태도는 점점 도태되고, 여성은 한 인간으로써 존중하면서, 개성적인 여성미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일어났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 졌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력 향상은 자기표현 방법과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여성의 미용 변화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20세기 미용은 조형 예술로서 디자인 영역으로 확보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중 Hair Style은 실용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Hair Style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 층을 말하는 것으로 헤어 두라고 하고, 프랑스 어로는 꺾아뛰르(Coiffure)에 해당한다.<sup>4)</sup> 또한 hair Style은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한다.

인간은 외적으로 변화와 생성을 반복한다. 그것은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영향에 얼굴이나 머리 형태로 변화하고 표출하게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표현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미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용이란 한 단

3) 미용 교제 연구회 종합 미용이론, 유신문화사, 1998, P2

4) 나윤영,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어로 정의하자면 미적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욕구는 인류가 처음으로 가지게 된 욕구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문명과 시대가 발달, 발전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변모해 왔다.

문헌으로는 B. C 4000-5000년 전 벌써 화장법이 고안 되어졌으며, 머리의 장식과 빗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내려왔다. 이는 신체를 장식함으로써 화장이나 분장으로 모습을 장식하였음을 원시시대의 동굴 벽화나 이집트의 벽화 등에서 알 수 있다. 고대의 미에 대해 보면 이집트 시대에는 선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으며 그리스 시대에는 비례의 미와 자연미를 추구하여 발전해 왔다. 이후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색채가 발전하였고 산업 사회에는 대중문화의 확산과 물질적 풍요로 인한 아름다움의 추구하고 과학적 발전으로 유행보다는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미를 정의하고 있다. 예전에는 20세기 이전에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다양성이 없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예술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Hair Style이 유행 연출하였다. 또한 20세기의 Hair Style은 세계 제1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여건에 의한 여성의 정신적, 물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서의 탈피는 상징하는 1920년대의 헤어스타일의 급진적인 변화에 이어 1930년대는 찰스 네슬러의 Permanent Wave의 발명과 1960년대의 비달사순의 과학적 Cutting의 기법의 발표 등이 20세기의 Hair Style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Hair Style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70년대부터 나타나 시작한 토탈 패션은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시키게 되었다.<sup>5)</sup>

---

5) 이주연,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3.

## 제1절 20C 서양의 유행 hair style

문화적으로 영화와 Mass Media의 등장으로 미주와 유럽이 서로 교류하며 비슷한 양상을 띄우게 된다.

**1900년대부터** 시뇰(Chignon)과 아르누보(Art Nouveau)의 곡선미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과 버슬(bustle)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 헤어스타일은 모발이 두상의 전체적인 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름해 보이도록 표현한 스타일이다. 이러한 스타일은 사회적으로 세기말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스타일이 나오게 되었다.

**1910년대**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보브(Bob)스타일은 기초 미술가 킵슨(Gibson)이 창작한 킵슨걸 스타일로 일컬었고 유행하였다. 이 스타일은 점차적으로 두상을 작게 표현하여 현대 형의 Cut에 의한 머리 시대를豫告하였다.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단순하고 손질하기 좋은 형태로 발전하였다.

**1920년대** 보이시한 짧은 Hair Style 유행하였으며 머슴 같다는 의미의 Garconne Hair Cut가 유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고 직업을 가지고 독립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또한 영화 산업의 발달과 스타들의 패션을 모방하는 풍조와 머리를 오랫동안 손질하는 습관은 사라지면서 짧게 커트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남성머리 형태는 소년 같은 이미지의 학생 같은 머리인 이튼(Eton)컷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짧은 스타일에 크로세라는 종 모양의 모자가 유행하였고 각종 터번, 밴드 깃털 등 다양한 헤어 액세서리도 유행했다. Bob 스타일이 등장한 것도 1920년경이다.

**1930년대** 세계경제 불황으로 미디엄길이의 헤어와 퍼머넌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극단적인 쇼트 컷이 사라진 것이다. 20년대의 단발 스타일은 세련되고 성인다운 분위기로 변화하였고 배우의 스타일을 모방하면서 백

금 색깔 모발색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는 염색이 보편화 된 시기이다. 스타일로 단발머리기 길이가 길어지고 끝부분이 안으로 말아지면서 페이지 보이 형태가 되었다. 이 형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긴 단발이 되었으며, 앞 가리마나 옆가리마를 하고 앞과 옆의 부피를 줄이고 뒷머리를 느슨하게 내려뜨리는 유행 스타일과 헐리우드 영화의 전성기를 맞아 영화배우 진 할로우(Jean Halow)의 금발을 동경하여 헤어블리치도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는 후반에 Cold Permanent 약제가 발명되었다.

**1940년대** 뉴룩(New Look) 스타일이 Hair에도 적용되었는데, 볼륨을 되도록 작게 표현되고, 이것은 화장, 의상과 잘 조화를 이루어 현대 귀족적 여성미가 정착되었으며, 긴 머리도 잘 빗어서 뒤쪽으로 붙여져서 프렌치트위스트 스타일의 단정한 모습으로 창조 되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에 다시 헤어스타일이 짧아졌고, 두상을 작게 표현하여 여기에 세팅과 퍼머넌트 Wave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두상에 딱 달라붙는 시농(Chignon)스타일도 인기가 있었다.

**1950년대** 포니테일(Ponytail), 머블(Bubble)스타일, 페이지보브(Pagebob), 헵번(Audrey, Hepburn), 마를린 먼로(Marilyn Monroe) 등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는 유럽문화권 중심의 유행에서 미국 문화권 중심의 유행으로 옮겨 간 시기이다. 짧은 머리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헵번식의 짧은 머리와 이 스타일을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하여 곱슬 거리게 한 푸들 스타일, 마를린 먼로식의 조금 긴 듯한 쇼트 컷을 롤을 말아 풍성하게 부풀린 버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30년대 헤어스타일이 미디엄 길이의 웨이브 머리도 유행한 시기였다.

**1960년대** 제키(Jackie), 비하이브(Beehive) 트위기(Twiggy)의 짧은 머리 스타일인 비달 사순(Vidal Sassoon)의 가하학적 커트가 등장했다. 뒷머리 부분에 볼륨감을 살린 머리 형태와 짧은 단발 형태, Long Hair Style 에

도 뒷부분에 공기를 넣은 것 같이 볼륨을 만든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인위적인 볼륨을 만든 Hair Style은 유행이 뒤흔치는 것이 되었으며,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 스타일 즉 스트레이트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 헤어스타일은 젊음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다른 스타일로는 중량감이 있게 겹쳐진 호트러진 웨이브 머리도 유행하였으며, 남성들에게는 레이어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어 길어진 웨이브와 머리가 인기 있었다. 파라파세트(Farrah Fawcett)의 컬 진 헤어 유니섹스 모드의 대중화로 과격적인 펑크스타일도 유행하였다. 길고 웨이브 진 머리가 유행하였고, 레이어 이스타일이 본격적으로 유행하여 모발의 층과 움직임의 장점을 살린 바람 머리 스타일이 등장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30년대처럼 어깨 위에 느려 뜨려진 부드러운 질감의 컬이 다시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흑인 민권 운동과 함께 흑인 등의 극단적인 컬 형태의 머리 자연스런 바람머리 운명에 반하는 집시 스타일이 잘 꾸며진 머리는 유행에 뒤진 것으로 여겼으며, 바람머리처럼 자연스런 형태를 선호했다. 흑인 풍의 유행으로 컬이 많은 아폴로 머리 스타일과 파라 포세의 자연스런 긴 머리가 유행하였다. 70년대 후반에는 Punk Look이 등장하여 스파이키 Hair Cut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는 복식보다 Hair Style 집중 표현되고 전위적인 Hair Style 등 하위 집단에서의 유행은 High Fashion 업계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스타일을 일반 대중들도 따라 했다. 앤드로지너스 표현으로 머리스타일로 성별이 구별되지 않았고, 영국 황태자비 다이아나비 머리 등 유행하였다. 말에는 헤어스타일에 남녀가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양성적인 모습이 짙막한 헤어가 인기 있었고, 뉴 웨이브의 영향으로 인한 특이한 머리 모양과 컬러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사회 전반의 Post Modernism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는 변화

가 용이한 Hair Style 표현되고, 과감하고 과격적인 색상과 형태가 인간의 감성 표현하는 매개체로 Hair 分野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Hair Style은 얼굴과 전체적인 외모에 Accent를 주는 것은 물론 문화적 역할까지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개인의 독창성이 주요시 되어 Hair Style에도 다양한 개성에 맞게 창조 되고 후반에 와서는 인간의 感性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스타일로는 스트레이트(Straight), 레이어드 보브(Layered Bob), 베이직 레이어(Basic Layer) 등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6)7)

## 제2절 20C 우리나라의 유행 Hair Style

우리나라의 20세기 초반에는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녀의 머리 형태로 양쪽 귀 머리를 땅아서 뒤에서 모아 다른 모발들과 함께 땅아서 늘이고 끝에는 땁기를 묶었는데 가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반가의 규수들은 귀 밑머리로 귀를 다리고 일반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았다. 나이 어린 소녀들의 머리 형태로 앞가르마를 똑바로 타고 양쪽으로 좁게 땅은 다음, 귀 밑머리에서 나머지 모발과 다시 합하여 땅은 양쪽에서 땅아 온 모발을 뒤에서 다시 합하여 매고 어린이용도투락땁기 또는 말뚝땁기로 장식하였다.

1895년 고종의 단발령 이후에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남자들의 머리를 짧게 깎고, 양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여자들도 1934년부터 단발형의 머리 형

---

6) Bevis hillier,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서울: 수학사

7) 김희숙, 20세기 서구 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태가 유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37년경부터 퍼머넌트가 전파 되었다.

해방이 되자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넌트 머리가 다시 등장하였으며 1934년 현대 미용학원이, 1950년에 정화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되었다. Hair Style은 어깨선보다 짧은 단발에 퍼머넌트를 하여 옆 가르마를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6.25 동란 후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계절과 연령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다양해 졌으나, 외국 영화 배우들의 모습에서 모방된 것이 많았고, 신문 잡지에 소개되는 많은 정보로 인해 획일적으로 유행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Cut의 기술이 향상과 다양화로 머리모양의 변화가 많았으며, 업스타일과 Bob 스타일(단발머리)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 블로우 드라이와 비대칭적 커트, 언밸런스, Layer Cut가 유행하였다. 1980년대는 두발의 자유로 상고형 머리와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도입되었다. 1990년대는 표현의 자유 Color의 시대로 스트레이트 유행과 다양한 두피제와 욱모 시술이 유행하였다.

### Ⅲ. 미적 사회적 시대요소와 1980년대

#### Hair Style의 연관성

#### 제1절 미의식과 80년대 Hair Style과의 연관성

##### \*미용의미의식

20세기는 다양한 미의식 사고가 많이 형성되어 사회적 요소와 아주 많은 연관성을 띄면서 hair style에 영향을 주었다.

미의식은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미적 태도에서의 의식과정’을 가리키고 철학적 관점에서는 ‘미적 가치에 관한 직접적 체험’을 의미하거나 ‘미적인 것의 창조, 관조 등 미적 태도 일반에 관한 정신활동’ 등으로 정의 된다.<sup>8)</sup>

미의식의 개념은 미적 내용을 창출해 내는 측면과 미적 내용의 향수를 뜻하는 관조적인 측면을 가진다. 창조적인 측면은 작가의 조형의지 미의식의 관조적 측면은 조형 의지에 의해 창출된 미적 대상을 사용하고 관찰하는 미적 감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미적인 것은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의 대상적 구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미적인 것은 자연 풍물, 인간의 생활, 역사적 사상으로부터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자연미(The Aesthetic in Nature)와 예술미(The Aesthetic in Art)로 대별 될 수 있다.

자연미는 자발성(Spontaneity)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노력하지 않는 완전성(Effortless Perfection)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은 노력의 결과(The result of labour)에서 온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의식은 인간의 창조성을 질게 하고 이러한 행위는 인위미로 인간의 의식적 예술로 보여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상

---

8) 진선정의 4명, 미용미학과 미용 문화사, 청구 문화사, p.11.

물로 하는 미용의 행위는 인간의 자연미를 손상 시키지 않고 더욱 증대 시키며 그 인위성의 창조적 행위가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로 변화하여 개성 있는 미적 스타일로, 최고의 아름다운 미를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1. Feminism과 80년대 Hair Style

여성들은 단지 남성과 다른 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아 왔다.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는 여성 문제를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본주의의 발달은 여성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고 교육의 확대를 가져 왔다. 이에 여성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의식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의식이 페미니즘(Feminism)이며, 페미니즘은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특징을 재정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그 본질로 한다. 즉 페미니즘(Feminism)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남녀 간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운동으로 이는 인류의 이상에 비추어 사회를 이상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으로서의 남녀평등 운동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즘(Feminism)은 여성 대 남성 투쟁이 아니라 Humanism이며,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형과 사회형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미용문화에 나타난 것을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머리 형태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적이고, 조형화된 짧은 커트스타일의 머리를 즐겨했으며, 남성들도 웨이브 스타일의 긴 머리카나 Bob 형태의 머리 형태를 많이 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화장형태 면에서도 여성 취향적인 스타일 보다는 자신의 성을 넘어선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을 나타냈

다. 1980년대는 이러한 미의식의 발달로 남성들도 웨이브 파마(그림 1) 그림을 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머리를 긴 대신 짧고 지적인 스타일인 보브(Bob) Style(그림 2, 3)이 유행하였다.



<그림 1> 남성의 퍼머넌트  
「boomhair.com」



<그림 2, 3> 보브 단발 스타일 「www.hanmir.com」

## 2. Young Adult와 80년대 Hair Style

외부적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불과 몇 년 동안에도 개인의 생활 경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소비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실감할 수 있었던 세대이다. 또한 스스로 Young 마인드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모습의 Young Adult 이므로 기성문화보다 Young문화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New City'에 속하는 Young Adult 세대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양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세대이다. 신세대적 감각과 의식,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하고 있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교량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즉 회사에서 왕성한 활동과 함께 기성세대인 40,50대 임원급의 마인드에 어느 정도 부합할 줄 알면서 후배들과도 어울릴 줄 아는 세대를 말한다. 1980년대는 6.25 전쟁 후 경제 개발로 인한 세대들로 그들의 세대적 가치 즉 개인주의 경향을 많이 양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Young 문화적 양상을 띄우게 된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을 가꿀 줄 하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그동안에 세대적 머리 스타일 젊은이들과 나이는 사람의 모습을 구분하는 헤어스타일(그림 4. 5)이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는 세대적인 Hair Style을 깨는 개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4. 5> 볼륨 스타일 「<http://www.tvhair.net>」

《자신의 개성에 맞게 젊게 보이는 스타일로 변한 모습》

### 3. Dismantlement와 80년대 Hair Style

1966년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구조주의를 속하는 자기 모순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계기가 내재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구조주의가 자기 스스로 분해되어 버렸음을 보여주며 소위 해체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였다. 서양의 형이상학 전통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접근 방식이 해체이며, 이러한 해체는 넓은 의미에서건 좁은 의미에서건 전통이라는 텍스트(Text)를 포함한 어떤 특정한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를 뜻하였다.

즉 해체주의가 파괴(Destruction)가 아닌 해체(Deconstruction)인 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의 내부에서 해체 혹은 탈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해체주의는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함으로써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려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해체주의는 동일성 보다는 '차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지배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잊혀 왔던 '타자'를 인정하며, 불안정함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려 한다. 또한 전체성과 구조화된 체제에 억압 받는 '개체'의 해방과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해체주의가 80년대 미용문화에 나타나게 된 것을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성의 해체로 여성의 남성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긴 머리의 불편을 위해 덜기 위해 손질이 간편한 Bob 스타일이 유행되었고, 남성의 상징인 구레나룻을 헤어스타일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남성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상징인 긴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 착용, 포니테일, 염색을 이용하여 여성의 외모와 비슷하게 연출하므로써 남성에게 주어지는 성 역할을 해체시켰다. 제3의 성은 공유의 성으로서 헤어스타일 중 남자가 긴 머리를 했을 경우 수염을 기른다는지, 의상이 또한 남성스러

움을 강조한다든지 하고 여성의 경우 짧은 헤어커트에 화장을 하여 제 3성으로 표현했다. 즉 오늘날에는 남녀 모두 서로의 실리에 맞게 개성에 맞는 헤어스타일이 연출되었다. 둘째, 민족의 해체 현상을 들 수 있다. 레게 스타일의 곱슬 거리는 머리를 길게 땅는 머리, 인디언 헤어스타일의 깃털장식, 이마에 두른 끈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또한 동양풍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경제력의 강화,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 한국의 올림픽 개최와 아시안 게임은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 시선을 집중 시켰다. 동양풍 헤어스타일은 동방의 자연미를 추구하면서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다원화의 추구양상으로 한국의 전통 수발양식인 엷은머리와 일본의 에도 시대의 발양식인 환곡, 중국의 수발양식인 수계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기존 방식의 해체로 Punk Style을 들 수 있는데 기존 체계의 해체이며 사람들의 주목과 충격을 주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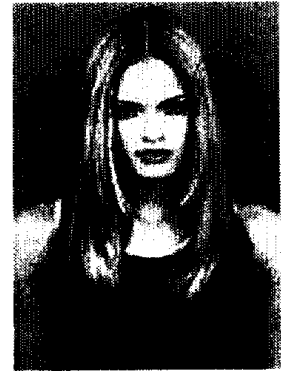
<그림 6> 레게머리  
「<http://shop.21.co.kr>」

기본적인 욕구를 헤어스타일로 나타냈다. 색 상표현에서도 개성표현, 반항심, 강렬함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타나게 된다. 80년대는 자아 표현과 개성 주의가 활발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성도 Perm을 하고 여성도 짧게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기존의 남녀의 성 해체와 동서양의 교류로 인하여 민족의 전통스타일이 유행(그림 6) 하였는데 이러한 것도 Dismantlement의 영향이다.

#### 4. Naturalism과 80년대 Hair Style

Naturalism, 즉 자연주의란 일반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양식화하거나

관념화하지 않고 보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재현하려는 예술제작 태도를 의미하며 자연미의 탐구와 존중이 들어 있다. 자연주의란 용어는 1863년 미술 분야에서 카스타나리가 도시생활의 정경과 풍속을 표현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 뒤를 이어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자연주의는 미술과 문학에서의 사실주의, 실증주의와 함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그림7> 롤스트레이트  
「www.http://jinhair.com」

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 그 대상이 ‘자연’으로서, 자연에 대한 깊은 향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자연주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 현실성을 거부하고, 현실을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예술에 적용하는 형태를 가진다. 자연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자연과 예술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데 과거에는 자연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주제로 자연주의를 심미적인 탐구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자연주의적 개념은 80년대 중반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에콜 로지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세기 말의 환경 파괴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이 담겨 있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인간과 생물학적 상호관계를 근거로 보다 큰 의미의 자연주의로 예술과 문화의 다방면에서 거듭나고 있다. 자연주의가 미용문화에 나타난 것을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머리 형태면에서는 인공적인 스타일이 아닌 히피 스타일의 롤스트레이트 (그림 7) 혹은 약간 헝클어진 머리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는 전반 기술적 진보로 인한 다양한 퍼머먼트의 개발로 머리의 형태가 인공적이었는데, 후반부에는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찾는 경향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이유로 한 시대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 5. Art Deco와 80년대 Hair Style

Art Deco라는 용어는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장식과 산업의 예술의 유명한 전시회인 Paris 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e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 에서 얻어진 제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Art Deco란 용어는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아닌 이 양식을 즐기기 위해 1960년대 Art Deco의 재현에서부터 사용되어졌다.

Art Deco의 出現은 아르누보의 과잉 장식 경향에 대한 反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곡선적이고 화려한 장식 취미의 아르누보는 1880년대부터 1910년경에 걸쳐 풍미하였다. 화려한 장식 Art Deco는 1920년대에 발전 30년대까지 전개되었으며, 아르누보, 입체파 러시아 발레단, 비우하우스 등 다양한 원천에 의한 복고주의적 경향의 양식으로 대량 생산 체제의 디자인을 적용시키려 하였고, 예술과 공업 그리고 예술가와 기술자간의 갈등 해고를 목표로 한 운동으로 요약된다. Art Deco 양식은 각 나라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가지며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20세기예술사조와 미국적 요소, 대중성 등의 여러 요소들이 절충적, 혼합적으로 표현된 총체적 디자인 운동으로서 건축, 실내디자인, 가구, 산업디자인, 패션, 수공예와 그래픽 등을 포함한 造形 藝術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Art Deco가 미용문화에 나타난 것을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머리 형태면에서 단순하고 굵은 선이 강조된 short cut style와 原色의 헤어 coloring이 나타났다.



80년대는 비탈사순의 기하학적인 선 cut의 도입으로 미용 분야도 하나의 예술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에 따라 80년대는 퍼머넌트도 다양하게 발전하였지만 짧은 cut(그림 8)에 Art Deco가 영향을 미쳤다.

<그림 8> 남성의 짧은 상고머리 「WWW.geocities.com」

## 6. Minimalism과 80년대 hair style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라는 용어는 평론가인 바바라 로즈(Rose, Barbara)의 1960년대 중반<Art in America>에 실린 논문에서 최초로 단순화된 미술을 ‘미니엄(Minimum)’이라고 지칭 한데서 최초로 등장 했고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었다. 미니멀리즘이란 용어는 이러한 미술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회화와 조각을 본질로 회귀 시키려는 경향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회화에 있어서는 재현된 형상과 착각적인 회화 공간을 배격하고, 하나로 통일된 형상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조각에서도 재현된 형상이나 좌대를 배제하며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보여 준다. 또한 미니멀 아트는 작가의 주관을 배제하면서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평면성이나 화면 그 자체의 형태를 근본적인 물체로 환원시켜 종래의 회화와 조각 개념 사이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미니멀리즘의 기저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적 사고의 특성으로서는 장식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미국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세이커교의 윤리와,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미국적인 기질을 들 수 있으며, 이로부터 미니멀리즘이 배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미국의 미니멀리즘은 유럽의 작가들이 재료를 통해 미술과 현실-미술과 비 미술-사이의 모호함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려 하는데 반해, 은유를 제거하고 미술작품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업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있는 그대로를 위해 재료와 형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특성은 크게 미술대상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문학적, 심리적 의미보다는 미술 대상의 물리적인 배경이나 관찰자의 반응이라는 미술대상 외부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는 실용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면서 문화와 실생활에 정착 되는 해

어스타일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유행 스타일에 중점적으로 많이 연출하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편리성을 찾는 헤어스타일로 변화되었다. 그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가정과 사회생활의 병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편리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이 미용문화에 나타난 것을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머리 형태면에서 짧은 단발머리(그림 9), 쇼트컷트, 포니테일(그림 10), 스킨헤드, Bob Style 과 롤 스트레이트를 수 있다.



<그림 9> 짧은 단발머리 「[www.megryan.com](http://www.megryan.com)」 <그림 10> 포니테일 「[www.nadri.com](http://www.nadri.com)」

## 7. Post Modernism과 80년대 Hair Style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은 1930년대에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모더니즘에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으로서 20세기 후반의 時代精神을 대표하는 문화적 現想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산업 혁명 이후에 발달한 문화사조로서 인간은 科學奇術의 발전을 통해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合理主義를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모더니스트들은 藝術에 있어서의 유토피아는 곧 예술의 순수성이라는 단일화하고 일관성 있는 想像 遞計라고 전제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이를 추구하였다. 그 첫번째 추구방식은 새

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實驗精神이었으며, 두 번째 방식은 高級文化와 大衆文化를 분리하고 동서양을 분리하여 조명하는 이데올로기적 이원논리였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은 객체보다 주체를 외적 경험보다는 내적 경험을 집단의식보다는 個人의식을 基本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성과 과학의 진보에 대한 서구인들의 신념이 히로시마의 원폭투하, 아인슈타인과 유대인 대량학살사건, 무절제한 생태계의 파괴, 핵전쟁의 위협, 공해문제, 마약의 위협 등을 겪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부터 기존의 서구 사회 문화적 질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Post Modernism**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가장 좁은 의미의 Post Modernism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문학과 예술을 가리키는 문예적 개념으로서, 19세기 중엽을 풍미하던 사조가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20세기 초엽을 풍미하던 사조가 Modernism이라고 한다면 20세기 後半은 Post Modernism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947)의 “역사에 대한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도 Post Modernis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187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서구문명의 후퇴와 중산층 부르주아의 몰락 그리고 합리적 세계관의 토대 상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Post Modernism은 1960년대 이르러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서구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어 建築, 言語, 美術, 哲學, 經濟, 輦劇, 英貨, Video Art 등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Post Modernism 懸象은 특정한 지역과 문화권의 전유물이 아닌 西洋과 東洋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國際的 文化 現想으로,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Post Modernism을 20세기 후

반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Post Modernism이 美容 文化에 나타난 것을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머리 형태면에서는 첫째 복고주의적 경향으로 추상적 경향의 모더니즘에 의해 과거의 것을 재현시켜 30년대 핑거웨이브, 60년대 비달사순의 커트와



<그림 11> 핑키 스타일  
「<http://shop.b21.co.kr>」

스타일이 재현 되었다. 둘 다 다원주의적 경향으로 히피, 핑키 스타일(그림 11) 같은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의 머리 형태가 하이패션(High Fashion)에 나타나게 되었다. 折衷主義 경향으로 Modernism의 이분법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고 男性的, 女性的, 東洋的, 西洋的 등의 양분된 이미지를 서로 혼합, 변조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여성의 매니쉬(Mannish)현상, 남성의 긴 머리, 에스닉 풍(Ethnic), 아프리카 스타일이 나타

나게 되었다. 80년대는 미디어의 발달과 86아시아 게임, 88올림픽 등을 계기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민족적인 성향이 강한 스타일이 유행하는데 밑바침이 되었다.

## 8. Dandyism과 80년대 Hair Style

Dand란 귀족주의 취향을 표방하고 나선 19세기의 下位 文化집단의 남성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치장하고 과도한 장식으로 나타나는 무절제한 취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를 통해 단련된 정신과 취향에서 스스로 우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 기호로 복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댄디즘(Dandyism)은 Dand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일련의 원칙과 그들의 생활 태도 즉 생활에서의 절제와 정제를 통해 추구되는 그들의 정신세계이다.

20세기에 와서 댄디즘은 종종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전형적인 격식을 갖춘 차림도 댄디(Dand)하다고 하며, 또한 남성이 전통적인 어두운 색의 사용을 기피하고 보다 화려한 색을 사용하는 것 또한 댄디 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초기의 댄디 복식을 염두하고 사용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형성된 댄디 복식과의 비교를 통해 사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댄디(Dand)라는 개념은 20세기에 와서 다소 모호하고 이중적인 분위기에 사용된다. 현재의 ‘댄디 Dand’ 개념은 이 모든 의미들을 포함하여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댄디즘이 미용 문화에 나타난 것을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머리 形態面으로는 짧은 롤 스트레이트(그림 12, 13), 깔끔하고 심플하게 빗어 올린 업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다.

80년대는 롤 스트레이트가 인기를 얻었다. 단순하면서도 지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이 유행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커리어 우먼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미디어도 이러한 지적 이미지로 짧은 롤 스트레이트를 강조 하게 되었다.



<그림 12> 짧은 단발  
스타일 「www.nstv.co.kr」



<그림 13> 롤스트레이트  
「www.shoplg.com」

## 9. Pleasure와 80년대 Hair Style

쾌락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동기와 가치 및 기준에 관한 사고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사전적 의미로서는 쾌락은 선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느껴지거나, 간주되는 것의 즐김(Enjoyment), 기쁨(Delight) 만족

(Gratification)의 상태 다소 비우호적인 의미로 인생의 주된 목표, 혹은 그 자체에 있어서의 목적으로서 감각적인 즐거움(Sensuous Enjoyment), 육체적인 의미로 생리적 욕구(Appetites), 탐닉, 관능적인 만족된(Satisfied) 상태나 사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쾌락 원리에서 쾌락은 인간과 동물의 삶에서 기본적인 동기 유발 요소로, 인간과 동물은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를 지닌다. 또한 심리분석에 따르면 불쾌에 의해 야기된 긴장이나 쾌락적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정신적 활동의 주된 원천을 형성하며 삶의 본능의 일부로서 주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쾌락은 감성(感性)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으로 말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쾌락적인 삶’이라고 말 했을 때는 이는 자연스럽게 감각적인 향락에 바쳐진 삶을 간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쾌락주의에 말하는 ‘쾌락’이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든 즐기고 있는 의식의 기는 것’, ‘불만 없이 마음 편한 상태의 감정(Feeling of Contented) 을 느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sup>9)</sup>

80년대는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지신만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가 점차 대중화 된 시기이다. 이는 개성 있는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 미적 의식 구조를 나타나게 되었다. 남들의 의식을 가리지 않고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림 14>  
「WWW.NEVER.CO.KR」



<그림 15>  
WWW.YAHOO.CO.KR」

가발을 사용하여 올린 업스타일      헤어 스타일제사용하여 개성 있게 연출

9) 진선정의 4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 문화사, 2002, pp.11-13.

## 제2절 미의식과 1980년대 나타난 Hair Style과의 관계

1980년대 유행한 스타일은 다양하고 개성 있게 연출되었다. 이는 다양한 미의식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미의식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표1)

| 미 의 식                       | 영향을 받은 요소                                              | 1980년대 영향을 받은 hair style                               |
|-----------------------------|--------------------------------------------------------|--------------------------------------------------------|
| 페미니즘<br>(feminism)          | 남녀의 평등<br>사회형 인간형                                      | 여성의 남성적 커트<br>남성들의 wave perm                           |
| 영어덜트<br>(Young Adult)       | 교육의 자율화<br>소비 시장의 급격한 발전<br>국제적인 영향                    | 세대 간의 자유로운 스타일                                         |
| 해체주의<br>(Dismantlement)     | 남녀의 상징적 사고가<br>벗어남<br>민족의 해체 현상<br>동서양의 이해 확산과<br>문화교류 | 남성의 긴 머리 스타일<br>여성의 짧은 머리 스타일<br>레게, 펑크스타일<br>국제적으로 유행 |
| 내추럴리즘<br>(Naturalism)       |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 80년대 후반의<br>스트레이트에 영향                                  |
| 아르 데코<br>(Art Deco)         | 절충적인 혼합적 역할                                            | 굵은 선이 있는 단발과 염색<br>coloring 유행 선도                      |
| 미니멀리즘<br>(Minimalism)       | 경계선의 모호한 특성                                            | 콘케이브 커트                                                |
| 포스트모더니즘<br>(post Modernism) | 복고주의 경향<br>다원주의 경향                                     | 60.70년대 유행 스타일이<br>그대로 유지                              |
| 댄디즘<br>(Dandyism)           | 생활의 절제<br>정신적인 안정과 우월성                                 | 롤스트레이트<br>업스타일이 유행                                     |
| 쾌락주의<br>(pleasure)          | 자신의 자아중시                                               | 개성을 연출하는 다양한<br>표현의 헤어스타일이 시작됨                         |

과거에는 아름다움이 미적 목표라면 시대라면 이제는 자기만족과 개성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제 현대 사회는 고대 사회와 다르게 일부 특권계

급이 미적 문화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게 미적 표현을 보통화 시키는 것으로 미적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다양성을 가진 미가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남과 동일시 보다 자신의 만족과 미적 표현을 나타내는 심리적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20세기의 미적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 **제3절 시대적 헤어스타일과의 80년대 Hair Style 연관성**

#### **1. 1960년대 유행 Hair Style**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자유당의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와 비민주적인 인권 탄압에 항거하여 비민주적인 인권 탄압에 항거하여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교수, 지식인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난 4.19 의거가 있었던 해였다. 그 결과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서 1년여 동안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196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5.16군사 정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경직되었던 사회였다. 정치적으로 1960년대는 헌법개정과 1962년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공포와 이어 언론법 등 파동 정부의 종합 물가 대학에 이어 6.3 데모와 계엄 선포 한일 국교 정상화 등 전체적으로 경직된 시기였던 것에 반에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경제개발 장기 계획 선포와 농·어촌 고리채 정리 중소기업은행 발족,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제2차 통화 개혁 10대 1로 평가 절하, 환율을 원으로 변경하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밑받침을 하는 시기였다.

국민 총 생산량이 1조 3백만 70억(36억 7천 1백만 달러)과 1인당 GNP가 3만5천3백 원에 이르렀고, 경제 성장률이 12.7%나 뛰었다. 이러한 경제 발달은 미디어의 발달로 이어져 KBS의 시험방송과 민간 문화방송국 탄생으로 많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유명한 스타일로는 타이고르테일 있다. 이 머리 스타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 Hair Style은 타이고르테일 사자의 꼬리처럼 만든 타입을 말하며, 두상의 중간까지 머리 다발을 얹은 헤어피스를 사용하여 뗏슈 대신에 말아서 사자 꼬리 모양으로 한 것으로 헤어피스를 모발 다발에 엮거나 헤어밴드 층으로 감아서 모양을 낸 머리스타일이다. 이 헤어스타일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림 16> 제클린 케네디  
「www.media.daum.net」

유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올린형의 머리로는 제클린 케네디 부인(그림 16)이 곧 잘 하였던 업스타일로 꿀, 벌집 모양의 한 유형이었는데 이 머리형은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파사넬로가 디자인한 머리형하고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볼륨 드라이 펌 같은 머리형에 두상을 크게 부풀렸으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새기 발랄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60년대 초의 여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세계화는 1960년대 통신 위성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전신기와 전화기가 발명이 되고 우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는 아폴로호가 발사되어 우주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통신권으로 연결되었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크라운 부위가 높고 볼록한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이 시대의 여성스타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 쉬한 스타일, 두 번째는 소녀 적이고 인형 같은 Hair Style이 나오게 되었다.

첫 번째 스타일은 기존의 여성적 성격을 탈피하여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고정적인 여성의 억압된 스타일에서 자유로운 스타일연출에서 유래한 헤어스타일이다.

두 번째 인형 같은 스타일은 그 동안 밋밋한 스타일에 식상한 대중은 가발 붐이 일으며 탑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다. 머리 모양을 과장되게 부풀게 하기 위하여 옷차림과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스타일이 더욱 다양하고 세련되어져 갔다. 진한 아이라인에 인형 같은 속눈썹이 길게 붙여졌으며 눈매를 강조하는 메이크업과 더불어 머리의 크라운 부위를 풀려 스타일을 강조 더욱 강조 시켰다.

탑 부분에 후카시를 넣거나 심을 넣고 위에 머리를 곱게 빗었으며 탱고 춤의 유행으로 일부 유한마담이나 영화배우들이 즐겨 하던 매혹적인 머리 스타일(그림 17)이다.



<그림 17> 1960년대 올림머리  
스타일 「www.naver.co.kr」

#### 《1980년 작품머리와 웨딩 한복 스타일로 유행함》

머리 스타일의 양감의 형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부풀려서 웨이브를 준 바가지 스타일과 백조라인이라고 하는 조금 변형된 스타일

도 있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점차 여성들도 정치적으로 교육개혁과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커짐에 따라 여학생들도 많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따라서 점차 이러한 준 바가지 스타일과 백조라인 스타일은 여학생들의 고정머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스타일은 앞머리 부위와 귀 양 옆에 높이를 준 즉 부푼 양감을 준 헤어스타일이다. 이 Hair Style은 프랑스의 미용 고등 조합에서 발표한 작품이다. 이 헤어스타일은 발표 되자마자 곧 전 세계가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 왔다. 이 듀오라인은 크라운 부분을 높게 올린 드래시한 헤어라인으로 클래식한 분위기의 헤어스타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타일은 바가지를 얹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바가지 스타일(그림 18)로 부르게 되었다.



<그림 18> 앞머리 바가지 스타일 『www.empas.co.kr』

#### 《1980년대 비달사순의 영향을 받아 유행한 헤어스타일》

또한 1960년대에 들어와 서는 다양한 커트 기술의 향상으로 다양한 커트형의 머리가 유행하였고, Clipper의 등장으로 뒷부분의 머리를 정리한 상고단발과 정수리 부분을 부풀린 일명 바가지 형태의 머리 모양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 중간 정도의 머리 길이에 안 마름과 겉마름을 하여 웨이브를 준



<그림 19> 갈마름 스타일 유행하였다.  
「www.naver.co.kr」

스타일(그림 19) 이 시기에 유행하였다.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적인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였다. 경제공황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우주 왕복 선 아폴로가 발사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비틀즈가 탄생하여 미니스커트와 간편하고 싱그러운 Bob Style. 비틀즈 음악이 등장하여 1여 년 동안



<그림 20> 비틀즈  
「www.membars tripod co.kr」

비틀즈(그림 20)의 등장은 Bob Style도 팝 음악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hair style로 앞 프린지를 길게 늘였으며, 머릿결은 스트레이트를 하였다. 또한 금속성의 우주적인 느낌을 강조한 펄 재료 의상과 미니스커트와 롱 부추와 앞코가 약간 무딘 로힐이라는 신발이 선보였으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들의 존재 의식과 더욱 확고한 사회적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유행하는 Cut형으로 자연스럽게 모발의 흐름을 강조하여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네추럴한 스타일이 도입된 시기였다. 이 Style은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세계적인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하여 유행한 이사도라 스타일은 귀여움을 연출하는 스타일로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미용 계에 하나의 획을 만드는 TREND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스타일은 귀가 반쯤 나오는 길이의 Gradation, 보브, 스타일 이사도라 스타일로 파생시켜 프론트 부분에 뱅을 만들어 둥글게 마무리하여 콘케이브Concave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또한 Bardot라는 배우는 "Dieu creq la Femme'라는 영화로 1956년작 이  
 지만 1960년대 자유분방한 Hair Style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스타일은 긴 머리카락을 일부러 홀트린 스타일과 벌집 모양으  
 로 벗겨졌으며 뒤와 옆은 부드러운 웨이브로 컬을 살려 빗었다. 모자 위에  
 덮어 섹시하고 여성스러우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였다. 남성의  
 Hair Style은 귀를 들어나게 하는 짧은 머리형이 계속되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는 비틀즈의 덤석 머리형을 연예계에 종사하는 가수나 배우들이 많  
 이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미디어의 발달이 1960년대에 시작하였다. 경제적인 여건과  
 다른 국제적 흐름을 늦게 유행하게 되었다. 1960년대 스타일은 1980년대에  
 유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80년대 복고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일면서 1960년  
 대에 유행하던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바가지 스타일 같



<그림 21> 헵번스타일  
 -앞머리스타일의 대명사  
 「www.naver.co.kr」

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 하나의 붐으로 유  
 치원과 초등학교 이학당시 에 이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스타일의 유행이 세계적으로 흐름과 동일  
 시되는 이유는 1960년대는 미디어의 등장 즉 텔레비  
 전의 보급화에 따라 문화적인 영향관계가 국내적이  
 기 보다는 국제적인 흐름과 넓혀 갔으며 1950년대  
 국제적으로 유행한 헵번스타일(그림 21)은 지금까지  
 도 앞머리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 2. 1970년대 유행 Hair Style

경제 개발 계획으로 인한 고속 성장기로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여성들  
 의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는 個人主義가 만연하게 됐다. 국회 진출을 통한

여성들의 정치 활동 증가로 가족법에 대한 意義를 제기하는 등 女性의 權利를 確立하는 여성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론 불경기, 오일 달러 쇼크, 인플레이션 현상 등 전 세계적으로 不況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은 날로 높아져 여성의 자기 직업을 중시하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리고 여성 운동은 가부장적 권력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여성들을 비난 하면서 미용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세계적 회교 지도자 호메니가 TV개막과 함께 오일 생산량을 政治的 힘으로 이용할 것을 인식함으로써 1차오일의 생산량은 감소하여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2차오일 쇼크는 1979년 사우디가 주축이 되어 오일 생산국들과 오일을 무기화 시켜서 경제 신보호주의가 대두되었으며 대체 에너지 개발의 시급함을 전 세계에 알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그 뒤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다.

전쟁 후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이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직장에도 다니면서 보수적인 스타일을 찾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의 스타일은 보다 성숙한 감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긴 롱스커트인 월남치마가 유행하였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전쟁과 대립이 번잡했던 세대에 인가성의 상실을 경고하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반전운동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지지를 받았으며, 기성세대에 반발하여 社會的 不滿을 표출하는 펑크 스타일등 젊은이들의 독특한 유행 스타일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의 경제성장은 급속한 텔레비전과 電波媒體의 發達을 많이 등장시켜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퍼머넌트 기법의 보급과 커트 기술의 향상, 각종 미용기구의 도움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우리나라 미용전문가들이 해외의 미용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커트의 概念이 긴 머리를 자른다는 것에서 모

발의 刻刀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 시대로 전환하였다. 머리 모양은 ‘개성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옷차림, 메이크업과 더불어 선택 사항으로써 더욱 다양해지고 세련되어 갔으며 샴푸와 린스 같은 두발 제품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커트의 개념이 긴 머리를 자른다는 개념에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정립된 시대였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커트를 창안한 비달 사순의 기법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는 커트 붐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고, 내추럴 경향으로 웨기커트(Shaggy Cut)라는 일명 거지 커트가 유행하였다. 이 커트는 뒤 목덜미 부위에 길게 유니폼 레이어(Uniform Layer)형으로 커트한 것이었다.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 긴 장발과 함께 청바지 문화가 새로운 서구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들의 히피 스타일은 당시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던 짧은 머리와 대조를 이루었다.

1973년경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장발족의 남자들을 경찰서로 잡아 들여 클리퍼로 한쪽 머리를 고속도로처럼 밀어버리고 훈방 조치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성들의 장발족이나 웨이브를 내서 풀어놓은 히피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또한 앞머리를 변형한 계단식이 유행하였으며 젊은 여성들은 간결하고 생동감나는 상고머리 스타일을 하였다.

사회적으로 70년대 말에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연스러우면서도 간결한 머리형이 여성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의 아이론과 세트에 의해 단단한 웨이브 구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블로우 드라이란 가벼운 웨이브 스타일이 나왔다.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만을 강요당하는 억압에서 탈피를 상징하듯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스타일이 나타났고 치마의 길이가 갈수록 짧아져서 구세대들의 눈살을 찌 부리게

했으나 신세대들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더욱 즐겼다. 우리나라의 흑백텔레비전 시대인 70년대는 색상에 대한 대중매체를 통한 급격한 확산보다는 영화를 통해 배우들의 선풍적인 스타일을 선호했던 시대이었다.

70년대는 집시풍의 Look이 유행했으며, 몇 부림의 감각적인 스카프를 유행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꽃 모양으로 각도를 지은 커트, 머리다발의 하나하나를 꽃잎으로 보고 머리 전체에 꽃을 모양 진 것처럼 한 기교적인 커트의 머리형이다.

1970년대 전반기는 커트 붐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고 제각기 개성화를 추구하는 여성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국제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여성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초기에 유행한 커트로선 일명 웨기 커트(shaggy cut)를 들 수 있는데, 이 커트는 뒤 목덜미 부위에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게 하는 커트로 한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Shaggy 란 말은 원래 거칠다는 말인데 말의 뜻과는 달리 실제로 이 커트 기법은 아주 섬세하여 어느 쪽에서든지 섹션을 잡아 보더라도 직선적이며 머리끝이 가지런하다. 크라운 부분은 핑크 스타일에 네이프 라인은 기다랗게 뒤로 늘어 뜨려 산만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림 22> 바람머리  
스타일  
「www.sayclub.com」

《70년대는 국외에서 80년대는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람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일이 소개 되자마자 각 미용실에서는 이 새로운 기구에 의한 새로운 기법의 스타일을 배워서 고객들에게 보급하였는데 이로 인해 바람머리 스타일(그림 22)이 삽시간에 유행하였다.

이마를 거의 가린 듯한 형태로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애나가 주로 했던 초창기 스타일이다. 사회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다이애나 비(그림 23)의 청순한 이미지가 바람머리의 유행을 확산시켰다.

이 헤어스타일은 정확한 브런트 컷(Blunt Cut)와 말끔한 블로우 드라이 테크닉으로 영국미용의 우아한 스타일의 대표적 스타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 스타일에 매료된 세계 여성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그 테크닉을 살려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3> 다이애나 비  
[www.royal.gov.uk](http://www.royal.gov.uk)

### 《8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앞머리 스타일》

또 전통적인 시저스(Scissors) 컷에 의한 블로우 스타일은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 까지 유행하고 있다.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컷과 그에 따른 Perm 타일이 유행하였고, 그 Perm머리에 블로우 드라이로 부드럽고 유연한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대로 일반적인 스타일로 펴미 자리를 잡았으며 스트레이트, 드라이 Perm, 부메랑, 핀컬, 드라이 Perm, 뿌리 Perm 등을 들 수 있다.

70년대 말부터는 불균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듯한 머리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커트는 비달사순 커트의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시저의 커트로 여성미를 살려서 만든 커트였는데 이 머리 모양은 컬이 움직이는 듯한 스타일로 완전히 조형화된 흐름에서 탈피하여 디자인 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을 콘케이브 커트(Concave Cut) 굴곡이 들쭉날쭉한 커트라고 불린 이 커트는 정돈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실루엣이긴 하나 정면에서 보면 아주 경쾌한 흐름이 포인트가 되어 살아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 색다른 감이 있는 커트다.

다시 말하면 정형적인 정보다는 모발의 흐름과 질감에 포인트를 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형이어서 이는 80년대 또다시 유행하는 커트로 자리를 잡았다.

### 3. 80년대 유행한 Hair style의 기법

20세기는 변화와 빠른 성장의 시기였으나, 20세기 초반에는 혼란의 시기였다. 1914년, 1939년에 일어났던 제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모든 변화가 가속화 되어갔다. 전쟁이 끝나자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호경기에 일어난 문화의 영향으로 전 유럽에 걸쳐 젊음의 문화가 유행하였고 남녀평등사상과 자유연애 풍조가 일어났다. 196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변영의 시대였다. 우리나라는 1950년의 6.25전쟁 이후 점차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군부의 강압적인 정치와 더불어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시기가 1960년대였다. 그리고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으로 경제가 더욱 발전하였고 경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과 수출 중대 시책에 힘입어 양적 규모의 확대는 물

론이고 사회 전반에 계층 간의 위계질서가 수직 적에서 수평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예술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다양성과 가변성을 추구하면서 예술분야에서 개인 양식의 공존과 기존의 미술의 차용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풍부한 문화의 주체는 바로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이었다. 그들은 이전의 젊은 세대와 달리 자신만의 강한 힘과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예술 분야에 디자인이라는 창작행위에 대하여 옷이나 건축이 아닌 헤어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고 인식하였다. 특히 헤어디자인을 패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매개체로서 헤어스타일이 패션의 분위기와 기초를 바로 알려 주는데 중요한 영향력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위대한 20세기의 기호학자 다이애너 블릴랜드(Diana Vreeland)에 따르면 여성의 스타일은 헤어스타일에서 시작하여 의상 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10)</sup>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다양하면서 모든 헤어스타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의 기준인데 이러한 이유로는 헤어가 하나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이것의 시발점으로는 헤어 디자이너인 비탈사순(Vidal Sassoon)을 들 수 있다. 이는 비탈 사순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헤어 디자인의 형태가 시작되었고 이의 시작으로 Cut에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Hair Cut는 개화기 이후 서양이나 일본 유학과들로 인하여 서서히 도입이 되었으나 그 수용층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sup>11)</sup>

국내에서 Hair Cut라는 디자인은 7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 졌다고

---

10) Beauty & Health 연구회, 세기의 헤어 아티스트, 현문사, 2001, p.19.

11) 민봉기, 연대별로 본 헤어 변천. 한국생활 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1995 pp.79-92.

볼 수 있다. 즉 이시기에 이루어진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을 아름다움으로 부각시키는 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미용인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80년대에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미용인들의 자세 변화는 헤어 디자인에서 커트의 중요성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커트 기법에 대한 기존 인식을 확장시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나누는 기하학적인 섹션기법의 활용을<sup>12)</sup> 통한 기술을 일반화 시켰는데 여기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비달 사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Cut Style을 발전시킨 비달사순은 기하학적 형태로 커트 디자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상류 사회와 서민, 정교함과 예술성, 상류 사회 패션 간의 격차를 해소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sup>13)</sup>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를 걸쳐 80년대에 비달사순의 Hair Cut가 Cutting 기법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80년대 이러한 cutting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행 스타일과 기법을 살펴보면



<그림 24> 낸시 콰  
(Nancy Quant) 스타일  
「<http://www.vclub.co.kr>」

첫 번째 낸시 콰(Nancy Quant)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1963년에 발표된 진보적인 Bob 스타일로 여배우 낸시 콰 이름을 따서 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스타일은 기존의 고전적인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가져 왔고, 스타일 형태는 뒷머리 중앙을 짧게 Cut하고 얼굴 쪽으로는 점점 길게 Cut 한 것으로 얼굴 옆, 머리의 사선이 턱 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머리는 풍성하고 가볍게 출렁이는 머리 결은 끝에서 부드럽게 말

리는 스타일로 연출이 된다.(그림 24)

12) 이기봉, “서울 올림픽이 한국 미용계에 미친 영향” 한국 인체 예술학회지, 2002, 제 3권 1호 p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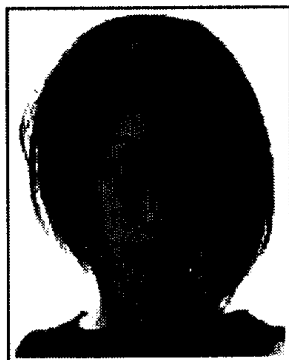
13) Vidal Sassoon and Bauhaus, cants, verlag, senefelder, atr.9,73760, ostfilsern, in the USA, p36

이 스타일의 경우 우리나라에 공장이나 학생들에게 단정한 이미지의 스타일로 유행하였다.

두 번째 파이프 포인트(Five Point)라 불리는 스타일로 모발의 길이는 목 위까지 짧게 내리고 머리를 예리한 직선으로 잘라 다섯 개의 각을 주는 방법으로 양 옆은 레이어가 되어 있고 크라운에서 시작되는 깊은 프린지와 연결되는 각도로 되는 순이다. 이 Cut는 헤어의 완벽하고 깔끔한 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머리를 흔들면 머릿결은 흔들리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기하학적 컷의 원조가 된 스타일이다. 이러한 스타일은 남성적인이면서 여성적 스타일이 공존하는 스타일로 각광을 받게 된 스타일이기도 하다.(그림 25, 26)



<그림 25, 26> 파이프 포인트(Five Point) 『<http://www.vsclub.co.kr>』



세 번째 비대칭 컷(Asymmetric Cut)스타일로 머리의 한쪽은 각진 프린지로 하고 다른 한 쪽은 컷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 두어 안쪽으로 기울어진 비대칭형 컷트이다. 이 스타일은 우리나라에서 언밸런스 스타일의 원조가 되어서 스타일 자체가 선풍적 인기를 끈 컷트이기도 하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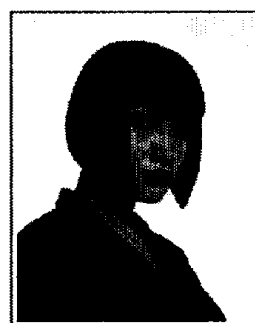
<그림 27> 비대칭컷트  
(Asymmetric Cut)스타일  
『<http://www.vsclub.co.kr>』

네 번째 층진 기하학적 커트(Acute Angle) 스타일로 오리지널 커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커트가 더욱 짧아지면서 찰랑거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 층을 내었다. 이 스타일은 클리퍼를 사용함으로써 응용 작품에 많이 이용된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림 28, 29> 층진 기하학적 커트(Acute Angle) 「<http://www.vsclub.co.kr>」

다섯 번째 (A-Line Bob) 스타일로 헤어 길이는 어깨 주위까지 내려오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풍만해지는 스타일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모발을 좌우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움직임이 있는 모발은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정교한 Cutting 테크닉으로 완성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림 30, 31> (A-Line Bob) 스타일 「<http://www.vsclub.co.kr>」

이 다섯가지는 세계적으로 비달사순의 기본 Cut의 기법으로 우리나라 70년대에 들어와서 80년대까지 시대적으로 유행한 스타일이 되었으며 이 5가지 Cut의 기법에서 변형되어 유행하였다.

## 제4절 사회적 요소와의 Hair Style 국내외적 연관성

80년대에는 경기의 호황으로 생활의 수준은 향상되고 소비문화가 정착되면서 소비문화 전반에 걸쳐 현대화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여성들의 의식은 나는 나, 나만의 것 등이 중시되는 개성시대라 도래하였으며, 이기적인 사



<그림 32> 2단 보브스타일  
<www.never.co.kr>

회 문화의 의식이 확산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만의 감정에 충실하고 패션 감각을 일상생활 속에서 센스 있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유행 스타일을 보면 84년경부터 시저와 클리퍼의 부조화와 커트 디자인이 유행함에 따라 뒷목 쪽에는 클리퍼와 긴 숄터이나 머리 결을 거슬러 밀어 올리고 앞쪽에는 자연스런 Perm Wave를 주는 일명 2단층 보브 상고 단발형인 E. T 머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그림 32)

이 스타일이 나오게 된 계기는 80년대 초반의 영화 E. T의 유행으로 시작되었다. 이 머리형의 특징은 네이프의 가이드라인이 짧은 것과 앞이마에 머리숱을 숨겨내려 놓은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살리는 것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 헤어스타일은 직선커트의 보브 스타일보다 전체 층이 연결되며, 단발의 끝 라인이 턱 위로 올라갔다. 이 스타일은 1983년 파리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점차 세계로 퍼져 갔다. 또한 해외여행이 상당히 자유화 되면서 많은 미용인들이 국제대회나 헤어 쇼에 참가하였고, 세계 유명 연구가들의 학교인 비탈사순과 같은 미용 연수가 본격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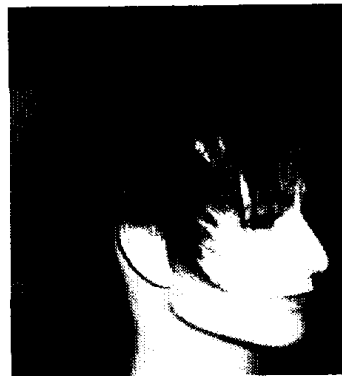
바야흐로 미용의 국제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Perm 그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웨이브와 컬에 실증이 난 젊은 여성층에서 스트레이트 Perm과 자연스러운 Wave Perm이 함께 유행하였다. 자연스러운 웨이브는 헤어 제품인

무스와 젤 등을 이용하여 앞머리를 세우는 닭 벼슬 머리가 유행하였다.

87년도에는 이탈리아 아트 팀을 이끌고 있는 지지 간디니가 그의 팀과 함께 한국에 와서 세미나와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 들은 국내에 포워드 스타일(모발이 앞으로 쏠린 듯한 스타일)을 보급하였다. 그 얼굴을 감싸듯이 뒤에서 앞쪽으로 선을 흐르게 한 이 스타일은 자유로움을 연출해 주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86년 봄 프랑스 고등 미용조합이 봄 시즌에 발표한 작품으로 커트 테크닉을 바탕으로 앞머리와 얼굴 둘레 머리끝에 섬세함을 내기 위하여 시저를 사용해서 테이퍼(Taper)를 하여 모발 끝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고 얼굴 위에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커트하여 앞으로 형클러진 듯하게 쏠리는 머리 모양이었다.(그림 33, 34) 또한 영국 황태자비 다이애나비의 앞이마를 가린 듯한 바람머리가 거리를 휩쓸었으며, Layer 컷의 업스타일이 잉글레즈 스타일로 물결을 이룬 듯한 드라이 기법이 유행하였다.

또한 세계 미용계의 황제라는 프랑스의 알렉산더 파리가 한국 미용계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그의 우아하고 매끄러운 머리결의 질감을 살린 업스타일의 작품은 경이로웠고 유행을 선도하였다. 국내의 각 TV신문 문화면에서 대서특필하였고, 토털패션 중에서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33, 34> 앞머리의 시저를 사용한 테크닉 <<[www.never.co.kr](http://www.nev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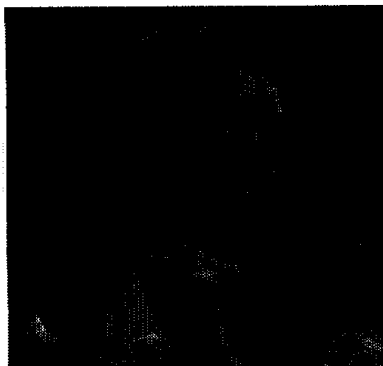


<그림 35> Brooke Shields  
스타일 <<[www.never.co.kr](http://www.never.co.kr)>>

따라서 여대생이나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클리퍼와 레이저를 병용한 커트인 펑크 헤어 또는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참신한 멋으로 유행하였고 브룩실즈와 같은 자연적인 굵은 눈썹이 유행하였으며 브룩실즈 (Brooke Shields) (그림 35)의 전형적인 Perm 웨이브 그 자체로 동양 사람들이 이러한 굵은 웨이브라면 풀렸다고 할 정도로 늘어진 형태의 모양에 앞머리는 짧기만 올리건 내리건 앞가르마건 자유롭게 섹시한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경직되고 깔끔한 단발에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한 웨이브 보다는 거의 뿌리 부분을 살리기 위한 드라이 펌의 테크닉이 강조되었다. 세팅을 한 듯한 정도로 뿌리를 강하게 살리기 위한 드라이 펌의 테크닉이 강조되었다. 세팅한 듯한 정도로 뿌리를 강하게 띄운 볼륨 퍼머넌트의 한 후 드라이로 모발의 움직임을 결정하였고 헤어 왁스를 사용하여 윤기를 살렸다.

다양한 기구의 테크닉에 웨이브의 형태와 모양이 색다르게 연출되었다. 볼륨 Perm, 내추럴 스타일도 변화 되었으며 인위적인 미보다는 내추럴 웨이브를 선호하게 되었다.(그림 36, 37)



<그림 36, 37> 세팅 웨이브 <<[www.never.co.kr](http://www.never.co.kr)>>

디스코 머리 같은 헤어스타일(그림 38)은 긴 머리를 프랑스식으로 땀은 스타일이 변형되어 굳어지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세가닥 땀아서 유래된 섞어 땀게는 롱 헤어스타일에서 간편하고 활동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림 38> 올림머리 스타일  
Frenchbraid

포니테일 보다는 더 깔끔하여 우아해 보이고 한복을 입을 때에도 처녀들은 땀기머리 스타일을 즐겨 엽스타일의 어른스러움 나타내기도 하였다. 80년대를 도전적이고 풍자적으로 나타냈다. '펑크' 스타일은 남성들 사이에 제한 없이 퍼져갔다. 펑크족은 영국에서 시작하였는데 이들 펑크족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울긋불긋한 색의 갈기를 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지나갔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주 가늘고 총총 머리로 땀은 아프로 스타일이 아프리카의 전통을 이어 갔다. 이 스타일은 미국의 여배우 BO Derek에 의해 시작하였다. 이 이국적 스타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사는 소수의 흑인들과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즐겨 했다. 이 총총 머리가 변형되어 사기꾼 남자로 보이는 스타일처럼 되지만 실제로 아주 옛날 고대의 문화 창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총총 땀어진 머리는 네그로 인종을 대표하는 형이다. 유럽으로 이민 온 소수의 흑인들은 이 머리를 인정하고 추구하며 미용계를 주름 잡았다.

펑크 헤어스타일은 1980년대 고딕 문화 (Goths, 파시즘, 죽음, 악마주의)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여기 극도로 Back Comb 하여 염색된 검정머리와 검은 옷과 스타일에서 남녀 구분이 없는 모습으로 'The Jesus and Mary chain and The Cure'로 20년간 활발한 음악 생활을 잘 주는데 이들이 70년대 말 정통 PUCK가 뉴 웨이브의 영향을 주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스타일로 머리모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머리 모양은 새로

운 로맨틱과 Toyah, Grace, Jones, Phil Oakey의 길고 짧은 썰기 모양 cut 같은 팝스타들의 스타일의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주름잡은 곤두세워 부풀린(Back Comb)을 넣은 헤어스타일의 개념이 노동자 계급의 여자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부유한 미국인의 공상생활양식은 얼굴에 헤어가 충분히 흘러내리도록 주위 깊게 염색하고 층을 내던 상류사회에서 변형된 형태를 통해 채택되었다. 여성들은 헤어에 염색을 하고 층을 내기 시작하였다. 드라마 'Dallas'에서 영감을 얻은 곤두세워 부풀린 Hair Style은 단단한 헬멧처럼 보이게 하며 확고히 그녀를 자연스러움보다 세련되게 하였다. 이러한 고도로 인공적이고 심하게 고정된 헤어스타일은 Volume을 주는 기법으로서 전문적인 Hair Design에 의해서만 표현되었으며 Hair Style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복고 스타일은 여성 Fashion계의 운동인 '성공을 위한 드레스'는 '파워 드레싱'의 부분으로서 단발머리의 부활과 상징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1980년대는 전 세계적 고성장을 이룩한 시대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흑백텔레비전에서 컬러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색상과 컬러의 다양화로 유니섹스 모드가 등장하여 유니섹스 모드 Young Adult 개성을 강조한 헤어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유행의 확산이 급속도로 대중화가 되었다.

80년대 초에는 짧게 자른 커트머리도 많이 나타났는데 특이한 형태로는 일명 '거지커트'라고 하는 커트 머리가 유행하였다. 1984년 후반기에는 단발머리인 보브 스타일이 부쩍 부쩍 인기를 끌었다. 내추럴 Perm 전체의 머릿결은 생생하게 살리고 윗부분은 약간 핑크스타일로 처리하여 단발머리만의 단조로움을 커버해 주었으며, 10대의 소녀에서부터 40대의 중년부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구애받지 않은 대중적인 스타일이었다. 1985년 이후에는 1984년의 단발형의 생머리와 비대칭인 것, 중간 길이 Perm로 집약되던 스타일이 얼굴 전체를 드러내는 쪽보다는 마치 얼굴과 이마를 깃털로

감싸는 듯 하게 보이는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또한 머리끝에서 제각기 멋대로 바람에 흐트러져 화려 듯 하면서도 야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런 분망함 속에서 부드러운 여성미를 함께 나타냈다.(그림 39, 40)



<그림 39, 40> 내추럴 perm와 펑키 스타일 <<[www.never.co.kr](http://www.never.co.kr)>>

1986년에는 앞머리, 뒷머리, 옆머리 등 머리를 가 부분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종류의 Perm로 자연스러운 멋을 낸 조합 Perm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타일이 서울에 등장하였고 1983년경부터 유행하던 스트레이트 Perm가 여름을 맞이하여 주춤하면서 드라이어 대신 조합 Perm가 환영을 받았다. 또한 머리 결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웨이브에 탄력과 윤기를 더해 주는 모발 화장품인 무스(mousse)와 젤리(jelly)가 생산 보급됨으로써 조합 Perm는 더욱 확산되었다.(그림 41)



<그림 41> 젤과 무스를 이용한 헤어스타일 <<[www.never.co.kr](http://www.never.co.kr)>>

무스를 미용한 헤어 모드는 특히 1987년도 이후 많이 나타났는데 무스는 원하는 머리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링 제품으로 남녀 청소년이나 성인 남성에게 이르기까지 사용이 널리 확장되었다. 이러한 제품은 사용 후 매일 머리를 감아 그 성분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모발이 상하고 탈모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1980년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 되어 헤어스타일에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였고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뚜렷해진 시기였다. 1980년대 초에는 여대생이나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클리퍼와 레이저를 병용한 커트인 펑크 헤어 또는 디스코 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된 동기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녀평등이 활발해지면서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커트와 퍼머넌트 웨이브의 디자인이 다양해졌고 새 질감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 미용기구가 많이 나왔으며, 유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갖가지 패션 가운데 헤어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미용사의 감성과 감각이 빛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퍼머넌트 웨이브의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컬에 실증이 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스트레이트 퍼머넌트와 긴 머리에 살짝만 웨이브를 준 풀어헤친 듯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함께 유행하였다.



<그림 42> 보브 웨이브머리  
「www.sayclub.com」

또한 짧은 머리의 취향에서 차츰 여성적인 것을 찾기 위하여 세미 롱 단발 스타일이 나왔다. 이 스타일은 입체감이 없고 평면적인 우리나라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목 밑 부분을 무겁게 단발 스타일로 처리하고 머리 윗부분을 커트하여 전반적인 헤어스타일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었다. 유행에 민감한 여성은 단발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주로 하였는데 중단발 기장의 보브 스타일의 특징은 손질하게 쉽고, 기능적이며 아름답고 풍부한 움직임이 있어서 젊음과 여성적인 침착함을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식과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그림 42)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는 헤어 무스(mousses)와 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 스타일링(hair styling) 제품이 보급되어 이를 사용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대표적인 스타일로 앞머리를 세우는 유행은 세운 머리의 높이와 자존심이 비례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외국 여행 때에는 한국 여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헤어스타일만 보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풍적이었다. 일명 ‘일명 자존심 머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미용계도 빠른 속도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개성을 추구하며 어떤 한 가지의 유행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의 유행이 나오게 되었다. 머리의 길이도 다양한 길이의 스타일이 공존하면서 유행하였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캐주얼웨어(Casual Wear)가 다양하게 착용되었고, 헤어스타일은 가볍게 풀어헤친 듯한 긴 머리의 퍼머넌트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퍼머넌트 한 긴 머리가 함께 유행하였다. 중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길이든 굵게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여 컬이 두드러진 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듀오 라인을 변형시켜 모발 끝을 가볍게 처리하고 목선 부분에 부드러운 느낌의 포인트를 준 스타일도 있었다. 또한 옆머리는 귀 위로 바깥쪽 치켜서 자르고 뒷머리도 짧게 잘라 뒤쪽을 강조 하는 도회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스타일과 기르거나 포니테일 형으로 묶는 등 여러 가지의 개성적이고 자유스런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인 1998년부터 정수리 부위를 높이 세운 차분한 스트레이트 헤어와 끝말음이 우아함을 주는 보브 스타일이 서서히 등장하였다. 광복 이후 모발 염색을 해왔는데 1980년대와 전반적인 모발 염색 보다는 일부분에 악센트(Accent)를 스타일이나 대담한 색상의 모발 염색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발 염색은 컬러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색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퍼머넌트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기본형의 퍼머넌트 웨이브로부터 핀  
컬 퍼머넌트 웨이브, 부메랑 퍼머넌트 웨이브(Boomerang permanent  
wave)등 특수 로드를 이용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성행하였다.

1980년대는 일부 연예인들이 우상화로 십대들의 모방 심리를 부추겨 패  
션이나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확산시켰다.

## IV. 결 론

본 연구를 1980년대의 헤어스타일이 영향을 받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이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스타일이 이루어지는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미디어의 발달과 교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었다. 198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기법이 보편화 된 시기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가지 스타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스타일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문화적 미적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적요소에 받은 영향을 보면 먼저 많은 영향 Feminism에서는 남성적 웨이브와 여성적인 보브 스타일을 탄생시켰고, Young Adult는 기존의 나이의 개념을 지나 자신을 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 계기를 마련시켰다. 또한 Dismantlement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을 없애면서 남성이 여성 스타일을 여성이 남성스타일을 하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스타일을 만들었다. 또한 Naturalism으로 스트레이트가 나오면서 기존의 곱슬머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후 복고주의 영향과 다원주의 경향으로 1970년대 서양에서 유행하여 1980년대 우리나라에도 유행현상으로 히피스타일과 펑크머리 스타일이 자리를 잡았고, 댄디즘은 자신의 우월성과 부정과 긍정의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인 여성의 진출로 세련된 롤스트레이트를 만들게 되었다. 퀘락주의는 자신의 개성존중과 자신의 자아 표현으로 이제는 점차 1980년대는 유행도 중요하지만 유행과 접목시켜 헤어스타일에도 개성을 연출하려는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제적 스타일은 1980년대 우리나라

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는 1960년대의 비탈사순의 정립된 기술이 80년대 보편적으로 영입이 되면서 다양한 기법의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국제적으로 60년대에 국제적인 비탈사순의 기하학적 커트와 바라머리 스타일 1970년대의 드라이의 개발로 인하여 자유로운 느낌의 바람머리스타일 등 자유로운 스타일과 비대칭의 감각의 헤어 커트가 유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스타일은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와서 정착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는 점차 단 시간 안에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헤어 스타일을 예전에 비해 빨리 받아 들였는데, 이럴 수 있는 배경으로는 미디어의 발달과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 기술혁신, 스포츠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발전이 헤어스타일의 국제적 교류를 가져 왔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그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적인 헤어스타일과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하고 개성이 있는 스타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 참고 문헌

- 나윤경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연구(199-1990)>  
호남대학원, 2001.
- 안현경 <20세기서구여성의 머리 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5.
- 이나경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광동대 대학원, 1999.
- 이주연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5.
- 임석종 <패션트렌드와 헤어스타일 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2.
- 정임숙 <20세기 서구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2.
- 운지성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0.
- 진선정 <서구 여성의 머리 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0.
- 나윤경/윤점순 (2002) 미용산업 발달에 따른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한연구  
패션 비즈니스 학회지 43, 제 6권 제3호 .
- 진성경외 <미용 미학과 미용 문화사>, 청구 문화사, 2001.
- Beauty & Health 연구회, 비달사순 50년사, 현문사, 2001.
- 류은주외, HAIR DESIGN AND VISAGISM, 청구문화사, 2000.
- PELUQUERIASHAIR STYLES 통권제 31호, 페루큐리어 코리아, 2002.
- 곽형심외, ART OF WAVE, 청구 문화사, 2000.
- 크리스기 크리스기 컷, 도서출판 미산, 2000.

이의수      모발과학, 현문사, 1998.

한국미용학회, 미용학 사전, 신광출판사, 2003.

이미션 편저<HAIR COLOR ART>, 현문사, 1999.

김춘득      <미용문화사>, 경춘사, 1999.

김춘득      <동서양 미용 문화사>, 경춘사, 2002.

류지연 외 <뷰티 코디네이션>, 교문사, 2000.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 문화사, 2001.

류계원외 <미용학 원론> ,교문사, 2001.

류은주      <clinical hair coloring>, 청구 문화사, 2001.

이상근저 외<전문가를 위한 모발 염색디자인>, 형설 출판사, 1999.

미용 교제 연구회 종합 미용이론, 유신문화사 1998, P2

이성옥 외 4명, 이미지 메이킹, 수문사, p.42

Vidal Sassoon and Bauhaus, cants, verlag, senefelder, atr.9,73760,  
ostfilsern, in the USA,

## **ABSTRACT**

### **A study on the hair style in the 1980's**

**- Focused on the 1980's society and connection of hair style -**

Shin, Joung Mi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of the aesthetic, times and society and the hair styles. In other words, it reviews the correlations of the changes in 1980s' Korean hair style to the factors of the times and society, and identifies the influence the prevailing hair style gives and its background.

People seek various changes of their own looks, while living. Of them, what is able to express primary changes is dressing up the body. That is, people characteristically or beautifully express themselves through fashion or makeup.

Cosmetology is constantly changing and seeks developments. This is because cosmetology has been correlated with changes of the times in social, aesthetic and cultural forms since the emergence of the mankind. Of them, the changes in hair style have created the fashion under the influences of aesthetics, society, politics, economy, culture, art

and so on.

The fashion repeats itself. In fact, fashion styles including hair styles which prevailed in the past are often found in the trends of the fashion. Since the fashion repeats itself, it is revived by correcting and complementing old styles according to the present times. Under these circumstances, women create their own new styles by incorporating their own subjectivity and individuality and create new hair styles with responding to the various desires of the society and the mentality.

When looking back the history from the beginnings of human beings up to date, the 20th century had the most changes aesthetically, sociably, scientif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for the past 100 years. Such evolvement brought a lot of creation and developments in hair style. Of them, the aesthetic factors have been influenced by feminism, Young Adult, dismantlement, Naturalism, Art Deco, Minimalism, Postmodernism, Dandy, and pleasure, and resulted in revealing various styles. Also, characteristic style has been made based on such styles. As the factor of the times, the geometric cut of Vidal Sassoon, which was predominant in the Western world in 1960s, Crown's Backcomb, Gradation, Bob Style, and the Isadora Style, which was exhumed by Isadora Duncan, much influenced Korea during the 1980s. That is, the angular and geometrical cut hair, including the popularized unisex mode and the radical hair style of the Punk and unbalanced style in 1970s, took hold as Korean fashion in 1980s, apart from the style expressing typical beauty.

Also, the blow-dry style began in the UK in 1970s and it led the Korean fashion in 1980s as the Brook Shields style. Also, th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evelopments such as the emergence of wave devices created various permanent wave styles. As the factors of the times and society, the liberalization in school uniform system in 1980s much influenced Korean hair styles. In the aspect of hair shape, the natural straight hair style, not artificial style, began in the middle of 1980s and greatly gained popularity in the latter of 1980s. The 1980s were recorded as an era that the hair styles which had been internationally prevailing before 1980s were rapidly introduced into Korea, ow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as well as social factors. The hair styles have served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hair style.